

【 VIP 회동에 따른 참고 자료 】

【 現 여건 】	
중단 內	○ 대정부 소통 단절 이후 최초 VIP 회동에 따른 관심 집중 ○ VIP 회동에 대한 중단내 일부 부정적 여론 존재 ○ 중단의 시급하고 중요한 민원사항 제기의 어려움
중단 外	○ 종교계 수장 회동의 직접적 사유 부재 ○ 종지협 구성원들의 VIP 회동 요청 ○ 남북정상회담 제안 내용 폭로에 따른 남북관계 재경색 가능성

■ 주요 말씀 내용(안)

▷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계 역할(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 5·24 조치(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대북교역중단 조치) 1주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평가가 있다.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어 통일을 대비한 민간차원의 교류마저 막혀있고 남북간 이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긴장관계도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 또는 경제분야의 교역이나 지원과는 별개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이미 국제기구나 외국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지원이나 교류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종교계가 앞장서야 사회적 논란도 줄어든 수 있고 현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으로 종교계 교류 및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이후 자연스럽게 종교 수장단 대북 방북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

▷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 주문 및 협조 의사

: 최근 보도에 의하면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갈등지수 4위국이고 연간 사회 갈등비용이 약 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순위와 비용을 떠나 사회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대통령도 그동안 사회 갈등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처음 대통령직을 수행할때의 마음처럼 사회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리며, 종교계가 이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 정부도 종교계의 자발적인 역할과 노력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제안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종지협 수장단의 해외성지순례를 통한 소통과 일체감 확인 사례 및 사회갈등의 한 분야인 종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거론될 수 있음)

▷ 국민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경제 정책 주문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경제 안정과 발전이다. 특히 G20의 성공적 개최와 뛰어난 각종 지표를 보아도 대통령의 그동안의 경제정책이나 성과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와는 다르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험 경기는 대단히 열악한 것도 현실이다. 지표와 체험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서민들이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이해 부족과 홍보 문제 만을 탓하지 말고 서민들이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지금의 경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 세계화를 위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얼마전에 유명호텔에서 한복을 입었다고 출입을 제지당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세계화, 일류화는 무조건적인 서구화가 아니다. 대통령도 얼마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에 가면 공항부터 호텔, 음식이나 의복 문화부터 일본 전통을 내세우고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알리려고 뉴욕에 한국식당을 정부 예산으로 오픈하려는 것 아니었나?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의 품격을 올리거나 세계화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전통문화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일부를 한국불교가 계승하고 있지만 불교의 전통문화도 일부분일 뿐이다. 종교적 관점을 떠나 어떤 것이 진정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얼마전 조계종을 방문한 뚜랑 추기경도 불교중앙박물관 관람과 탁본 체험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흥겨워 하더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